

직장 내 갑질 문제 해결되나

민주 이원택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피해근로자 보호 등 조치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받도록 대처 "직장 내 상호 존중 문화 정착시켜야"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지난 11일 직장 내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원택 의원은 "갑질행위의 예방교육을 통해 직장 내 상호 존중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밝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건전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갑질행위의 예방교육을 통해 직장 내 상호 존중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밝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건전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갑질행위의 예방교육을 통해 직장 내 상호 존중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밝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건전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피해근로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매년 받도록 대처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 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장 내 건전한 근무문화 조성 및 근로환경의 질적 개선이 향상 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갑질행위의 예방교육을 통해 직장 내 상호 존중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밝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건전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장 임명장 수여 후 인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서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왼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 예방 선제 대응 제도적 장치 마련

강용구 도의원, 감염병 예방 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전북도의회가 감염병 확산 예방과 관리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월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급속히 확산되면서 학사일정까지 미뤄지는 초유의 사태로 도민의 생명권 보호에 중대성이 시급해졌다"며 "감염병 예방과 지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가 필요해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감염병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추후 각종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의 구축 촉진이 예상된다.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도지사 및 의료인,도민의 책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책 및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 ▲감염병 관리지원단 및 관리기관 지정,운영 ▲감염병환자의 관리 ▲역학조사 및 표본감시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전북도지사는 감염병 업무 지원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용구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 K-방역의 핵심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였다"며 "2차 유행의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와 함께 도의회도 코로나19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위생직 확대, 학교 급식행정 전문성 확보"

박용근 도의원, 조직 개편 주장

전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의원이 지난 11일 제37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전북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병익 부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급식행정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직구조 개편을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의원은 "전북도교육청 내에는 학교 급식 업무 소관 팀의 조직구조를 보면 5급 팀장 등 업무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를 일반 행정직들로 보고

있으며 "학교 급식행정은 위생점검, 식재료 관리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업무가 많기에 일반 행정직이 다수인 구조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북도교육청 내에는 학교 급식행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식품위생직이 있으나 5급 이상의 직급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를 놓고 박 의원은 "교육청 내 전담 팀인 학교급식담당팀을 식품위생직으로만 보며 전문화,특성화 시기고 장학관,장학사의 복수직렬 허용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각 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 급식 관련 전담 팀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또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도래와 함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교 급식을 만들기 위한 민방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관련 조직의 구조를 면밀히 점검해보는 등 급식 행정의 효율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의회 예결특위 추경 심사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 고창2)는 지난 11일 2020년 정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안과 전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첫날에 이어 전북도 환경복지국 등 9개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김만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첫날에 이어 계속된 예산심사에 애쓰는 관계 공무원을 격려했으며 코로나19 및 정부 추경 대응 등 재원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임을 강조했다.

국주영은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환경보존계획 수립용역은 전북형 환경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이슈를 반영해 미세먼지 저감, 생대분야 보존 및 이용 등 전북도만의 특성화된 환경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희자 의원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춘 폐비닐, 폐농약병 추진사업으로 농촌환경이 상당 부분 개선된 점을 감안해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도 전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동용 의원은(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도내 지정 도립병원인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운영규정이 상이한 점과 관련, 과거 원광대병원에 위탁해 운영 하였던 군산의료원의 운영규정이 현재 전북도에서 적용하고 있는데도 과거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내 여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지원

홍성임 도의원, 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여성폭력 방지문화 확산 위해 규정 현행화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 최근 5년간 여성 대상 주요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성폭력 방지문화의 확산과 적절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규정을 현행화하는 등 기존 조례를 개정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여성의원인 국주영은(농산업경제위원회, 전주9), 박희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이재(행정자치위원회, 전주4), 최영심(교육위원회, 정 의당 비례대표)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제된 아동 폭력에 관한 사항은 '전북도 아동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통해 계속 지원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 돼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홍성임 의원은 "통계청이 발간한

축! 전주매일 창간

건강한 숲! 행복한 삶! 부안군산림조합이 함께 하겠습니다.

나무시장운영

임야경영 컨설팅지도

벌초대행

퇴비·고추 비료 판매

기계톱 면세유공급

조합원가입

정기적금

정기에금

정책자금 대출

일반대출 (토지매매외)

공과금자동이체

인터넷·모바일 뱅킹

SJ 산림조합상조

SJ 부안군산림조합

기술지도과 ☎ 584-3089 금융과 581-3301